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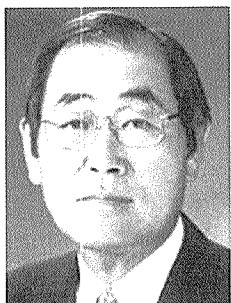
회장 동정

본회 윤종용 회장, 세계경제포럼 공동의장으로 개막 연설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하는 '전략적 통찰을 위한 아시아 원탁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에는 21개국 180여명의 경제분야 리더들이 참석했는데 회의 공동의장인 본회 윤종용 회장(삼성전자 부회장)은 개막 인사말에서 "세계 경제는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며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의 선두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IT분야에서의 협력 및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마잉주 대만 타이베이 시장은 "아시아 경제발전의 키는 IT였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아시아가 IT를 중심으로 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본회 윤종용 회장 연세대에서 강연



본회 윤종용 회장은 지난 2일 연세대 강연에서 "우리 경제현실에서는 고성장 지속→인프라 확충 및 분배개선→삶의 질 개선→국가경쟁력 강화 순으로 돌아가는 게 선순환"이라고 밝혔다.

윤종용 회장은 이 학교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경제개혁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현실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 나가는 것이 나라 전체에 유익한 지에 우선 순위를 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핵심기술과 핵심부품을 만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핵심기술은 돈을 쥐도 살 수 없고 기술을 살 수 있는 화폐는 기술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E와 IBM 등 패러다임 변화에 일찌감치 대응한 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조기 진입해 강자가 될 수 있었지만 대응에 실패한 기업은 성공한 사업에 안주하다 실패했다"며 "아일랜드의 경우 80년대말까지 최빈국이었으나 디지털 천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해 2000년 1인당 GDP에서 800년간 자신들을 지배한 영국을 추월했다"고 전했다.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지금은 도약의 기회"라고 전제하고 "아날로그 시대는 경험이 많을수록, 기술의 축적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디지털 시대는 빠르고 우수한 두뇌와 창의력, 도전이 승부를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메모리 분야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메모리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기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남보다 빨리 변화에 대응하면 한국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윤종용 회장은 강조했다.

본회 윤종용 회장, 서울대 초빙교수로 활동

윤종용 회장은 서울대 경영대로부터 초빙 교수로 임용돼 현직 CEO로서는 처음으로 강단에 서게 됐다. 그동안 윤종용 회장은 각 대학에 초빙돼 특강을 한 적은 있으나 정식 초빙 교수로 대학 강단에 서기는 처음이다.

이번 학기에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시작하며 2학기부터 정식 교과를 맡아 38년간 경영 일선에서 습득한 선진 경영기법을 가르칠 계획이다.

본회 윤종용 회장, 삼성전자 40년 현장경험 책으로

본회 윤종용 회장이 삼성전자 입사 후 40여년 간 경영 현장에서 체험한 것들을 책자 형식으로 엮어 내놓아 화제다.

'초일류로 가는 생각'이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총 400여쪽 분량으로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초일류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3부로 구성돼 있다.

윤중용 회장은 이 책에서 경영자와 관리자의 조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면서 “경영자와 관리자는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 변화를 주도하고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재 육성과 현장 경영과 함께 계수에도 밝아야 하고 국제 감각을 갖추는 것도 필수”라고 밝혔다.

EIAK 활동

본회, 전자신문 산업기술대와 업무협약 체결



〈전자신문사와 한국전자산업진흥회·한국산업기술대는 지난 8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전자·정보통신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개 기관은 IT기술을 이용한 산학협력을 통해 국내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왼쪽부터 최홍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박성득 전자신문사 사장, 이감열 전자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

본회(회장:윤중용)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최홍건), 전자신문사(사장:박성득) 등 3개 기관은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전자정보통신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산업발전에 공동노력하기로 하는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 전자정보통신 제품 사

이버 상설전시장 구축·운영 ▷ 전자정보통신분야 산업 기술 e-Learning 체제 구축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중 전자분야 지식전달 기반 구축 및 운영 ▷ 기타 전자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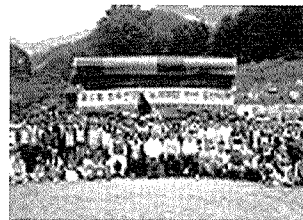
이에따라 3개 기관은 연내에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주문형 상품개발과 맞춤형 수출을 창출해 내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활성화 하기위해 1개사 1 바이어 1 전문상품 갖기 캠페인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홍건 산기대 총장은 “3개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내 전자정보통신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수출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우리 전자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제17회 전자산업인 친선 등반대회 - 삼보컴퓨터 최우수상 수상

본회(회장 윤중용) 주최, 전자신문사·전자부품연구원 등의 후원으로 지난 5월 21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에서 열린 ‘제 17회 전자산업인 노사화합 친선 등반대회’에서 삼보컴퓨터가 최우수상인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LG전자·삼보컴퓨터 등 25개사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이외에도 12개 팀이 우수상·준우수상·화합상·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 전자산업 노사화합 친선 등반대회 단체사진 ▶ 최우수상 삼보컴퓨터



▶ 우수상 삼영전자공업(주)

수상내역 현황

구 분	수여기관	수 상 품	결 과
최우수상(1팀)	산업자원부	DVD-P 4Set	(주)삼보컴퓨터
우수상(1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청소기 2Set 가습기 2Set	삼영전자공업(주)
준우수상(2팀)	"	보온병 4Set 그늘막텐트 4Set	한국물렉스(주) LG전자(주)
화합상(2팀)	"	포토스틱 4Set 배낭 4Set	(주)삼보컴퓨터 두산전자사업
특별상(6팀)	전자신문사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팔목시계 4Set 침낭 4Set 그늘막 4Set 배낭 4Set 화장품 4Set 코펠 4Set	SY하이테크(주) 청음전자(주) 삼영전자공업(주) 엑스넷 전자부품연구원 삼성전자(주)
계 (12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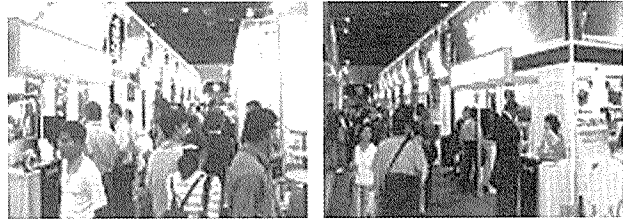
대만 『COMPUTEX 2004』 한국공동관 참가업체, 바이어들에게 큰 호평 받아

대만 세계무역센터(TWTC)에서 개최된 대만 최대의 국제 컴퓨터쇼인 『COMPUTEX Taipei 2004』가 5일 동안의 전시 일정을 마치고 지난 6월 5일 폐막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동전시회는 작년에는 사스 여파로 다소 위축되었으나 올해는 인텔, AMD를 비롯하여 Acer, Asustek, BenQ, ViewSonic, Giga-byte, Mitac 등 주요업체들이 대거참여, 참가업체수가 1,329개사로 전년대비 13% 이상 확대되어 개최 되었다. 또한 주최측인 TAITRA에 따르면 25,000명의 주요 바이어를 포함 관람객도 80,000여명에 달한다고 집계하였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을 보면 IC design을 비롯 Security, IP telecom and IP TV, eLife, Automotive electronics, Linux and open source software 등 7개의 테마관이 구성되었다는 점과 컴퓨터 부품 및 부분품, 주변기기에 편중되어 있던 과거와는 달리 LCD, PDP 등 Flat 패널 디스플레이와 디지털컨버전스제품이 대거 출품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다.

본회(회장 : 윤종용)는 이번 전시회에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잘만테크(주), (주)새로텍, (주)아이텍정보, (주)육성전자,

(주)엑토, (주)사운드그래프, 그레이트 퍼포먼스(주), (주)컴아트 시스템, (주)카마썬 씨, (주)아이필소닉, (주)멀티채널랩스 등



11개사 18부스 규모로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대만을 위시한 다른 경쟁국에 비해 한발 앞선 최신 기술을 선보여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바이어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 한국공동관 참가업체에서 출품한 주요 품목을 보면 컴퓨터 부품 및 부분품, 멀티미디어기기 및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등이며 한국공동관 참가업체들을 조사해본 결과 상담액은 1억2천만불, 계약액은 6천6백만불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공동관 참가업체 출품작 중 잘만테크(주)의 CPU/VGA Cooler, 무소음컴퓨터케이스, 리얼서라운드헤드폰을 비롯하여 (주)멀티채널랩스의 HDD Divx Player, (주)아이텍정보의 디지털어학학습기, (주)아이필소닉의 MF-Chip, MF Multimedia Speaker System 등이 높은 상담실적을 보였으며, 사용자인터페이스나 기능면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Media Center인 Multimedia System을 선보인 (주)컴아트 시스템(TV station)과 (주)사운드그래프(iMON series), VoIP Phone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주)육성전자, HDD 관련제품을 선보인 (주)새로텍 등도 바이어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진흥회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컴퓨터 생산기지인 대만에서 컴퓨터관련 전문전시회로 24회째를 맞는 COMPUTEX가 대형브랜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Comdex나 CeBIT 전시회와는 달리 Dell과 HP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부품 제조업체나 OEM 제조업체 등이 참가하는 소싱 전문전시회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올해는 과거와 달리 디지털컨버전스 제품을 대거 수용, 명실상부한 정보통신전문전시회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IT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출품작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2005년에는 한국관 부스 규모를 확대,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케팅활동을 적극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흥회는 CeBIT Hannover, Comdex Fall 등 13개 세계 유명 전자·IT 전시회에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의 해외마케팅 지원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전

사회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일 전자부품 e마켓플레이스, 7월 글로벌 e소싱 사이트로 새단장

한국과 일본의 전자부품 시스템을 연계한 '한·일 전자부품 e마켓플레이스'가 내달 전세계 전자부품 구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거래를 실시하는 '글로벌 전자부품 e소싱 마켓플레이스'로 거듭난다.

본회(EIAK <http://www.eiak.org>)는 최근 한·일간 전자부품 시스템 연계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자정보기술협회(JEITA <http://www.e-parts.org>) 측과 7월중 기존 전자부품 e마켓플레이스의 기능과 서비스를 개선한 '글로벌 전자부품 e소싱 마켓플레이스'를 재오픈키로 합의했다.

본회의 김성복 부장은 "일본 측과 양국 간 전자부품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서비스를 유료화한다는 당초 추진 계획을 수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e마켓 재오픈 이후 1년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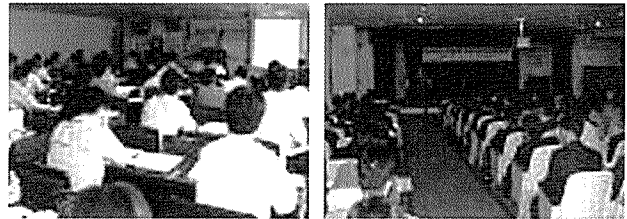
또 내년 7월 유료화 전환 이전에 요금을 연간 300~600달러 수준으로 재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새로운 마켓플레이스 이용률 확대를 위해 홍보 등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며 재오픈 일정에 맞춰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달 29일 재오픈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내 e마켓은 일정을 다소 늦춰 내달 7일 개장과 함께 시스템 발표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중국, 대만 등의 전자부품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기 위해 협력기관을 모색중이며 이를 동북아 전자부품 허브사이트로 확대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김성복 부장은 "이번 재오픈으로 싱글사인은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해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한·일 양국의 전자부품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전세계 전자부품 구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 1차 전자산업 환경경영 교육 성황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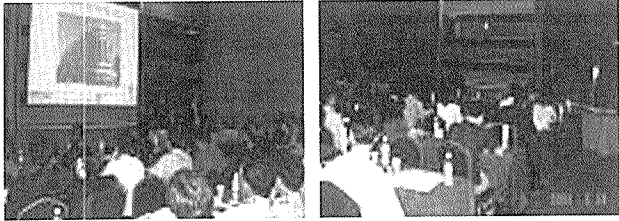
본회(회장:윤종용)는 산업자원부 지원 아래 중소 전자업체에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무 환경경영 기법을 이전하여 전자산업 전반의 환경경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5월까지 구미, 마산, 광주, 대전 등을 순회하는 2004년도 전자산업 환경경영 순회 교육을 모두 마쳤다. 이번 교육은 "국제 환경규제와 전자산업 대응, 환경경영과 친환경 제품생산,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주요 모기업의 환경경영 전략" 등의 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연에 참여하여 환경규제 동향과 산업에 대한 파급영향을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되었는데 전자업계 경영자 및 실무자 등 연인원 1,000여명이 교육에 참석하는 등 시종 높은 관심과 열띤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자업체에 환경규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차기 교육에는 환경경영과 관련한 전문가 풀을 대폭 보강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경영 및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실무기법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6%로 나타남에 따라 전자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급망(Supply Chain)상의 협력업체 전반의 환경경영 능력 제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전자산업 환경규제 대응 전담기관인 전자진흥회를 중심으로 모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 무연 솔더링 기술지원,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더욱 가속화 할 계획이다

2004 국제 특허동향 세미나

본회는 지난 5월 28일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보호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의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특허 소송에 대하여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ITC 특허소송 및 모의재판』이라는 주제로 국제 특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제품에 대하여 특허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등 특허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최근 우리 업계에 대한 선진국들의 특허침해 소송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금년 하반기에 전자정보산업계의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설 전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특허분쟁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책 마련과 각국의 특허분쟁 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증인 심문에 대한 ITC 특허 모의재판'을 실제와 같이 재현하여 우리업계에 특허 분쟁에 대한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진흥회는 동세미나를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서비스 하고 있어 전자산업정보망 동영상 메뉴를 클릭하시면 진과정을 볼 수 있다.

중소/중견 전자업계 구매조달 혁신을 위한 임원조찬회의 개최

본회는 6월 9일 팔래스 호텔에서 중소/중견 전자업계 구매조달 혁신을 위한 임원 조찬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중소/중견 전자업계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매분야에서 원가절감, 안정적 구매조달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Buying Power 부족, 시스템 구축 비용, 협력사 참여의지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주요 전자업계 5개업종 12개사의 구매 실무책임자와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자사의 협력사를 공동으로 Pool을 구성, 견적을 통한 정보교류를 1차적으로 추진하고, 이어서 본회의 구매시스템을 통하여 수발주를 On-line으로 추진키로 합의 한 바 있다.

이에, 최종적인 구매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동 회의

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Template사업에 대하여 설명과 중소/중견 전자업계 Supplier Pool을 통한 구매조달혁신 방안 등을 중점 설명했다.

2004 버밍햄 국제보안기기전(IFSEC 2004)한국관, 수출계약 4천 5백만불 체결

세계 최대 보안기기 전시회인 "2004 버밍햄 국제보안기기전(IFSEC 2004)"이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삼성전자, LG전자, SONY, JVC, BOSCH 등 40여개국 660여개 참가업체들의 치열한 비즈니스 경연을 벌인 후 폐막되었다. 국내 보안기기 업체들의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 윤종용)는 25개사 29개 부스 규모로 한국공동관을 구성, 참가하여 Mobile DVR, Networking DVR, 지문인식시스템 등 보안기기 관련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수출상담 1억4천만불, 수출계약 4천5백만불, 방문 바이어수 16,000 여명을 기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 보안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휘엔시스, 3R, 컴아트시스템, 워너텍시스템 등 국내 참가업체 부스는 연일 많은 바이어들로 활발한 거래상담이 이어졌고,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새로 개발한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거래선을 발굴하고 기존 거래선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등 세계 보안기기 시장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컴아트시스템 설창훈 사장은 "바이어도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고, KOTRA를 통한 정부지원금, 서울시 소재 참가업체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 참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웅장하고 화려한 부스 등 크게 개선된 전시관련 각종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어 내년도 확대하여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버밍햄 남동쪽 교외에 위치한 NEC 전시장의 홀6~21 중 홀19 중심에 위치한 한국공동관은 6M 높이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구성되어 인접 외국기업을 압도하였으며, 부스기등을 푸른색 형광빛 발광으로 처리하고 부스별 업체로고 및 회사명을 큰 글씨로 처리하는 등 시원하고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으로 바이어 및 현지 관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국관 운영을 위해 현지 파견된 전자산업진흥회 안준일 과장은 "진흥회는 동 전시회에 2000년부터 한국공동

관을 구성하여 매년 참가한 이래 5년째 참가하여 꾸준히 성장하는 우리나라 보안장비 수출판로 개척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역할을 하여 왔으며, 참가업체의 전시참가 성과, 부스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05년도에는 금년보다 60%이상 한국관 부스규모를 확대하여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자분야 부품·소재 할당관세 적용 건의

본회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전자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추천,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 우수전자부품 콘테스트 및 전시회 개최, △ 주요 전자업체의 부품 구매계획 설명회, △ 일본, 대만 등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해외 유명전시회에 공동관 참가 등 중소 부품업체 지원을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부품업계는 내수경기의 장기침체와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원자재 가격마저 폭등함으로서 우리 업계의 경영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부품산업

〈전자 부품·소재분야 할당관세 적용 요청품목〉

구분	HS No	원자재명	현재세율	채용제품
1	7106.10.0000	Silver Posder	3%	PDP TV
2	8103.20.2000	Tantal Powder	3%	탄탈콘덴서
3	8103.90.0000	Tantal Wire	8%	탄탈콘덴서
4	3906.10.0000	Acrylic Polymers Acrypet UT200	8%	프로젝션 TV용 렌즈
5	3906.10.0000	Acrypet VH5-000	8%	프로젝션 TV용 렌즈
6	3906.10.0000	Poly Methyl Methacrylate Acryl OZ-5000	8%	모바일폰용 등 CCD 렌즈
7	3902.90.0000	Polyolefin Resin Amorphous Polyolefin Resin Zeonex E48R	8%	모바일폰용 등 CCD 렌즈
8	9013.80.1090	Graphic LCD	8%	혈압계 및 체성분 분석계
9	8413.81.9000	Air Pump	8%	혈압계
10	9018.19.9000	Pressure Sensor	8%	혈압계
11	9018.19.9000	Thermal Printer Unit	8%	혈압계 및 체성분 분석계
12	8481.80.1090	Air Control Valve	8%	혈압계

※ 건의사항: 할당관세 적용(세율은 최대한 낮게 적용 요망)

의 기반자체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이에 본회가 우리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 희망 품목을 조사하여 정부에 건의했다.

Infocomm 2004 한국관 성황리에 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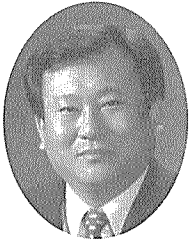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및 오디오 등 A/V 분야의 세계 최대의 전문전시회인 Infocomm 2004 전시회가 3일 동안의 전시일정을 마치고 6월 11일 폐막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한국공동관을 운영한 본회(회장: 윤종용)는 총상당액 3,500만불, 계약액 520만불에 달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본회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이번 전시회에 이례전자를 포함하여 14개사 22부스 규모로 디스플레이 전문중소기업 위주로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참가업체들은 첨단기술을 채용한 디지털 가전제품을 선보여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례전자, 유니드시스템, 넥스티어, 오르콤, 하스퍼, DM 테크놀로지 등은 PDP-TV 및 LCD-TV, 프로젝션 등을 출품하여 높은 수출 상담실적을 보였으며 카스피, 웰픽스, 빛샘전자는 스크린 및 프리젠티어, LED Video Screen 등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우암닷컴의 Conference System은 미국대학의 초청에 응하여 관계자에게 제품 실연의 기회를 가져 좋은 평가를 받아 향후 오더를 약속받았다.

한국공동관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Infocomm 한국공동관 참가기업은 대부분 기술력이 있으나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디스플레이산업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주)

회원사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카디날

대표자 : **이선용**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7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2층 205호

전화 : 02-868-6660, 팩스 : 02-867-0131

www.cardinal.co.kr

TFT LCD MONITOR



아이에스서플라이

대표자 : **장철수**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98-59

전화 : 02-2616-1492, 팩스 : 02-2616-1493

www.issupply.co.kr

써머콜,공기청정기, 애플커파기 등



휴맥스

대표자 : **변대규**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212-1

전화 : 031-331-9400, 팩스 : 031-331-9995

www.humaxdigital.com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경진일렉트론

대표자 : **이기진**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206호

전화 : 02-2113-7200, 팩스 : 02-2113-7201

www.kj-headset.co.kr

전화기용/컴퓨터용 헤드셋, 헤드셋 전화기, 헤드셋 앰프 등



덱트론

대표자 : **오충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87-3

전화 : 043-269-9600, 팩스 : 043-272-9933

www.decktron.com

LCD TV,MP3플레이어,PDP TV 등



부경디지털

대표자 : **유기섭**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411-24 프레콘빌딩 3층

전화 : 02-879-0860, 팩스 : 02-874-9539

www.bkdgtec.com

셋탑박스 등



아인텍정보

대표자 : **안상훈**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sk트윈타워 203호

www.eintech.co.kr

전기전자정보통신 제품 등 전화기, 연구개발



바로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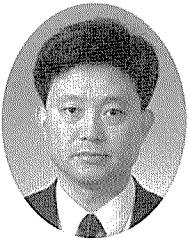
대표자 : **호순이**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호매실동 404-5 3층

전화 : 031-456-1561, 팩스 : 031-456-1562

www.baronics.co.kr

connector, bobbin, battery terminal 등



에피플러스

대표자 : **박해성**

경기 평택시 청북면 울북리 1027 어연한산산업단지 451-833

전화: 031-683-0020, 팩스 : 031-683-7373

www.epiplus.com

화합물 반도체 에피웨이퍼



테크밸리

대표자 : **김한석**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434-7

전화 : 031-735-5256, 팩스 : 031-735-5308

www.techvalley.co.kr

이화학용 측정분석물질 시험 기구, 의료용 장비 및 기구